



## 위컴즈가 만드는 자연과 기술의 만남



자연을 가까이 하며, IT의 딱딱함  
보다는 자율과 책임 경영을 중시하는  
위컴즈(공동대표 조익현, 송광선)는 직원 모두가 주주인 기업이다.  
창조적인 발상과 아이টে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는  
위컴즈를 방문했다.

### 발상의 전환은 IT 벤처의 미래

“사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유로운 발상을 위해 폐쇄적인 전략 보다는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컴즈 조익현 대표. 조 대표는 ‘IT’와 ‘벤처’라는 이름마저 생소하던 90년대 초, 신생업체 ‘텔슨’에 입사하며 초고속 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IMF이후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으로 텔슨이 좌초하게 되며 조익현 대표와 송광선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금의 위컴즈를 설립했다.

송 대표는 “위컴즈라는 배를 프로스트의 시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도전정신을 갖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컴피쉬’는 위컴즈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라고 말한다. 컴피쉬는 자연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위컴즈의 대표 상품이다. USB

디지털어항인 컴피쉬는 기능성 어항 및 컴퓨터를 이용한 어항 관리 시스템으로 2006년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2개의 의장과 1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 어항의 모든 생명유지 장치를 IT기술로 집적화시켜, 기포(산소) 발생, 온도조절,

온도센서, 조명기능, 카메라 촬영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또 이를 USB 5V 저전력으로 컴퓨터와 연결해 전원공급 및 제어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장착된 여과기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열대어 정보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어항이다. 이로써 열대어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열대어를 기르면서 관광,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미흡하지만 각종 언론 매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교육용, 인테리어 소품, IT 액세서리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내는 물론 일본의 경우 현지 정서에 맞는 제품이라는 호평아래 수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억 매출에 경상이익 9%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후속개발과 맞물려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위컴즈의 전망을 덧붙였다.

SVI에 입주해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네트워킹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조 대표는 “SVI는 벤처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네트워크 부분이 미약하기 마련인데 위컴즈는 그런 면에서 SVI라는 큰 뜻을 얻은 셈입니다. 위컴즈의 가는 길을 수시로 돌아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덜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며 SVI 운영지원센터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위컴즈는 현재 제품의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과 지적재산권을 추가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조익현 대표는 “우리와 함께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이 위컴즈의 경영철학입니다.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위컴즈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따뜻함이 흐르는 훌륭한 IT 제품들로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싶습니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온기 넘치는 IT 세상을 꿈꾸는 위컴즈의 미래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움에 따른 개방성 그리고 공격적인 전략을 두루 갖춘 팔색조의 모습을 담아본다.





# 약속을 지키는 기업 이븐스타

고객과 직원,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신의를 중시하는 기업 (주)이븐스타(대표 이상권). 회사용 대봉투 뒷면에 새겨놓은 'WE WILL GIVE MORE AND KEEP PROMISES' 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한번 한 약속을 꼭 지킨다는 기업 이븐스타를 만나 봤다.

## 기술기반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터

웹보안 감리 및 웹취약성분석기술, 웹로그의 보안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하고 있는 이븐스타는 사베인옥슬리법에 의거 국내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내부회계정보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년 이상 IT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이상권 대표도 창업 초기 여느 벤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과 인력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덕분에 오히려 철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준비 자세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창업 과정에서 입주한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교육과 인프라는 현재의 이븐스타를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현재 이븐스타는 웹보안로그분석기를 개발을 마치고 레퍼런스사이트를 구축했으며 지방총판계약까지 완료했다. 이 밖에도 웹보안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신생 벤처기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 이븐스타의 기술력이 다방면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내 최대 보안업체와 웹보안관련 특화채널계약을 맺고 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웹로그보안분석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위해 동류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도 교류 중이고요. 글로벌소프트웨어 회사와도 제품연동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어 당분간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력을 모으려고 합니다”라고 전하며 이븐스타의 검증된 기술력을 자랑했다.

이븐스타는 보안업계에서의 웹보안 관련 영업경험과 기술력을 바탕

으로 기존 업체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6억의 매출을 이뤘고 올해는 자체 제품을 비롯한 서비스 등으로 15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는 주목받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직원들과의 사진촬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이 대표는 “웹과 관련된 보안 분야 기술을 특화시키고 관련분야에 지속적인 투자 개발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으로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에 이어 “이븐스타가 추구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려면 우선 직원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직원들이 발전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겠어요?”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앞으로 웹2.0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븐스타는 예측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채널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채널중심 영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회사 기둥을 세운다는 개념으로 넓은 시야에서 접근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대표의 말에서 이븐스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보였다.

협력사, 고객, 직원과의 약속으로 성장하는 이븐스타의 행보가 기대된다.

